

화순군, 농민수당 본격

시행...올해 30만 원 지급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농민수당 지원 확정



화순군이 올해 농민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18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시기와 방법 등 '2019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지급대상자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분)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구비 서류와 함께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12월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농협 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면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중지된다.

화순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한 이후 1년여 만에 농민수당제를 시행하게 됐다.

농민수당은 민선 7기 구청군 군수의 농업 분야 대표 공약으로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제도다. 구 군수는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은 농민수당제 도입을 서둘렀지만,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졌고 지난 8일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18일 농민수당심의위 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구청군 군수는 "하루라도 빨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싶었지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면서 다소 늦어졌다"며 "시장군수협의회 가이드라인 등 제약조건 때문에 올해 우선 3개월분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 군수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추거적인)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모바일 앱 '여수맛' 출시

음식점 메뉴·가격·영업시간 등 각종 정보 제공

권오봉 여수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음식물가 모바일 앱이 18일 출시됐다.

'여수맛'이라 이름 붙은 이 앱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음식 업체 간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개발됐다.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여수맛'을 다운로드하면, 음식점 메뉴, 가격, 영업시간, 주차 공간 등 각종 정보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착한 가격업소, 여수10미 취급 음식점, 조식 제공 업소, 시민할인 정보 등도 검색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음식점이나 메뉴에 리뷰를 남겨 정보를 공유하고, 나의 맛집과 메뉴도 관리할 수 있다.

'여수맛'은 여수 소재 음식점이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10월 현재 음식점 821개가 등록돼 있고, 홍보 효과가 뛰어나 참여 업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수시는 음식정보 불가정보 모니터링 등과 함께 음식점 휴·폐업, 음식 가격·메뉴 등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지



한 관광, 신뢰받는 관광, 지속가능 관광의 밑거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모바일 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고흥군, 고용우수 인증기업 모집

고흥군은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고흥군 고용우수 인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고흥군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단, 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으로 축소 적용) 가운데 최근 1년간의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 2명인 업체이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이 해당된다.

신청기준은 근로자 증가율, 청년 채용 증가율, 추가 고용 계획, 고용유지율, 정규직 비율,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이후 사업심의회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 지역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요리경연대회 '최우수상'

담양 병풍산방 토종닭장백숙, 일반부분 최우수상



담양군이 제26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해 일반부분 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전남 지역 대표

음식을 홍보하고 각 시군별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강진군 생태공원에서 열렸다.

일반 부분 요리경연대회 군대표로 참가한 병풍산방(대표 박경순)은 남도 내륙지방의 주재료인 토종닭을 활용한 토종닭장백숙과 담양특산물인 백향과를 이용한 백향과 식혜로 최우수상과 부상 100만 원을 수상했다.

특히 병풍산방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100만 원을 담양장학회 장학금에 전액 기탁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순천시, 보육지원체계 개편 준비작업 착수

순천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에 2020년 3월부터 아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9:00~16:00)'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16:00~19:30)'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 내 아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시간 산정을 위한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222개소 아린이집에 도입할 예정이며, 각 아린이집에서는 재원 영유아 및 입소대기 원아를 대상으로 17시

이후 보육 수요를 학부모 전수 조사를 통해 연장보육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아이들이 연장보육 전담 교사의 돌봄 아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아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아린이집 교사는 장시간 보육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번호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